

#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독교 청년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 among Unmarried Young Christians

조성봉 (Sung-Bong Cho)\*\*

이수민 (Soo-Min Lee)\*\*\*

강병덕 (Byung-Deok Kang)(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s of unmarried young Christians, exploring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group differences and testing possible between-group differences on attitude toward marriage, marriage & child-bearing intentions, and child-rearing expectation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567 unmarried Christia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congruent, ambiguous, and inconsistent—based on six questions in three sub-categories, which were Christian perspectives on sex, disagreement on premarital/extramarital sex, and conservative attitude on physical touch. The congruent group reported highest scores on the three-sub categories; inconsistent group showed relatively high scores on Christian perspectives on sex while showing very low scores on conservative attitude on physical touch. Ambiguous group reported relatively high scores on conservative attitude on physical touch, showing relatively low scores on Christian perspectives on sex.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piritual maturity, fundamental evangelicalism, and worship service attendance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group differences. Lastly, young Christians in the congruent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ttitude toward marriage, marriage & child-bearing intentions, and child-rearing expectations compared to ambiguous and inconsistent group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we make a few suggestions related to Christian sex education and discussions.

**Key words:** unmarried young Christians, sexual behavior, perception, religiosity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5일 최종수정, 12월 6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scho@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smlsm1102@gmail.com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bkang@handong.edu

## I. 서론

최근의 연구들은 국내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이 상당히 개방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영(2021)의 경우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53%)보다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4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성에 대한 이같은 개방적인 의식은 실제 행동에서도 확인되는데, 학원복음화협의회(2017)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들에게 성경험 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2012년도에는 기독교 청년들의 25%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그 비율이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관계 경험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독교 청년은 39%, 비기독교 청년은 41%로 나타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성경험 여부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연구들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행동에 대해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활발해진 현시대의 경향(이규은, 2022)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승희 외, 2018; 송수호, 2016).

또한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 윤리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이가연, 주수산, 김종우(2019)는 20대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대개 부모나 교회로부터 받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나 기준을 알고 이해하면서도 실제 연애/성경험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에 대해 제시하면서,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이 혼전순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선을 넘거나” 성행위를 하였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혼전순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분위기와 보수적인 입장의 기독교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학원복음화협의회, 2017)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밝힌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혼전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유들(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52%), 결혼을 약속했다면 가능(10%),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31%))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자신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년들 중 상당수가 성에 대해서는 성경적 기준과 상관없이 현 세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행동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가 기독교 청년들의 실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여전히 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 청년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한 차이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등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세대 청년들의 개방적인 성의식/행동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의 회피나 거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낮아진 혼인율 및 출산율의 원인을 성의식/행동의 변화에서만 찾을 수는 없지만, 문헌들은 개방적 성의식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행동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석(2006)은 일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의식/행동이 개방적일수록 결혼 의향은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2020)의 경우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에 대해서는 낮은 전통적/보수적 태도를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오원옥(2009)은 종교가 있는 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에 비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나 의향을 지님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조성봉, 이수민, 장선아, 강병덕(2021)의 경우 기독교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수록 혼전 동거에 부정적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개방적인 성의식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행동 또한 그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기독교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아가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행동 수준이 그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나 결혼/출산 의향 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나 특정 성의식/행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제시하는 데 그침으로 인해 현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나 제공 가능한 개입에 대해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현시점에서 기독교 청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전통적/성경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분류하고, 나아가 그렇게 분류된 각 그룹의 청년들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성에 대한 전통적/성경적 기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미혼 청년들의 (1) 스킨십에 대한 입장(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에 대한 본인의 허용 정도), (2)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혼전 성관계 및 혼외 성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3)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성관계는 하나님의 선물, 육체적, 정서적, 영적 결합)을 함께 고려하여 기독교 청년들의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집단

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교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집단별로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혼 기독교 청년들은 성행동에 대한 인식, 즉 스킨십에 대한 입장,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2.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른 집단의 분류에 종교활동 및 신앙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및 출산 의향, 자녀에 대한 기대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그동안 국내 연구들을 통해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입장(이하 성인식/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개인의 성인식/태도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변수는 성별과 연령으로 확인된다(서은주, 차남현, 2021). 성별에 따른 성태도는 연구들에 따라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박선화, 2019; 양영미, 조미옥, 백경화, 2021; 우근희, 2011; 유연희, 2015; 정은숙, 2015), 그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순구, 2021;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조선희, 한은주, 2020). 또한 연령에 따라 성의식과 성태도가 다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성의식과 성태도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었다(김상임, 2000; 김영혜, 어용숙, 이화자, 최소영, 2003; 한내창, 2010). 한편 성행동과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박선화, 2019; 유연희, 2015). 대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김상희, 윤우철, 2012; 김순구, 2021; 서은주, 차남현, 2021;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2013).

한편,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 또한 성의식 및 성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성의식과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신근화, 강명희, 2013), 대학생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일회적인 성관계에 대한 허용과 성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낮아지고 성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이주연, 하상희, 정혜정, 2005). 그 외에 성태도는 성매체 접촉 유무, 흡연과 음주, 이성을 사귀는 횟수, 성경험 여부나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고(김상희, 윤우철, 2012; 노인숙, 김화선, 2020), 성적 자율성(강정미, 김미옥, 2021), 성인지 감수성(김수을, 김소명, 2022), 성에 대한 의사소통(조승희, 2020)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전공, 학년, 경제적 수준 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년이 더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더 높을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김미숙, 2010; 김순구, 2021; 김수진, 문승태, 강희순, 2011; 김윤희, 조규영, 2014). 이외에 개인의 경험 및 심리적인 요인 또한 성행동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성친구가 있을수록, 이성교제 횟수가 많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성에 대해 전통적인 이중기준을 사용할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문승태, 강희순, 2011; 김순구, 2021; 김영기, 2011; 김윤희, 조규영, 2014). 개인이 가지는 이념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의 차이와 같은 개인의 이념에 의해서 개인의 성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Harris,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이념으로서 경제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가족 내에서의 경험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와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성행동 경험이 더 낮았고, 가족으로부터 성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경우에는 성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김미옥, 2013), 가족 요인과 성행동 간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부모님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이은미, 김가영, 2017).

개인의 성행동은 성의식/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성에 대한 태도는 실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기, 2011). 연구들은 성태도가 왜곡되지 않을수록, 윤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성행동에 대한 경험이 적고(김미숙, 2010), 반면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행동이 더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윤희, 조규영, 2014). 한편, 기독교인의 경우 성의식과 실제 그들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난다(임희숙, 2014). 성의식과 성행동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구분되는 개념으로, 맥락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실제 성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인 측면으로서 성행동에 대한 태도와 함께 행동적인 측면으로서 실제 성행동을 각각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성의식/태도는 결혼/출산에 대한 의향 및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에 대해서도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과 높은 결혼의향을 보고한 반면(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을 할 의향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김정석, 2006). 종교 또한 결혼/출산과 관련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대가 높아 결혼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원옥, 2009).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생활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의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조, 2003). 하지만 기독교 청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실제 성행동에 따라 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또한 결혼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은 성을 인간의 전체적 자아의 한 기능으로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남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 본다(홍병호, 2006). 또한 성은 본인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사회와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성행위를 통한 부부간 연합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확대된다(남정우, 2003; 임희숙, 2014).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 자체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쾌락과 유희만을 위한 성행위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서 이 거룩한 영역이 성적 방종이나 무책임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되며(홍병호, 2006), 또한 성행위가 결혼 외의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결혼 계약을 위반한 상징으로 설명한다(남정우, 2003). 이 같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성 담론은 기독교인들의 성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최현중, 2015),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성태도가 더 보수적이고(김상희, 윤우철, 2012;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성적행동이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덕, 2011),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경우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전요섭, 함희영, 2007; 하주영, 김건희, 2009).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한내창, 2010), 교회를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상임, 2000). 반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유무가 성태도와 관련이 없거나(김영혜, 어용숙, 이화자, 최소영, 2004), 오히려 기독교인 대학생이 다른 종교인 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 등(주영희, 정은숙, 심묵숙, 2013)과 같이 기독교와 성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이 갖는 성에 대한 입장 및 그 추이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그러한 입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기독교 신앙의 유무나 예배 참석 빈도/출석 기간 등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성에 대한 생각, 태도, 가치관 등을 담아내는 표현으로 성적 가치관, 성의식, 성태도, 성인식 등이 맥락에 따라 상호배타적으로 혹은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되고 있다. 각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성의식이란 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생각, 견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식으로(강정미, 김미옥, 2021; 노인숙, 김화선, 2020; 김상희, 윤우철, 2012; 오원옥, 2009), 성행동에 대한 기준, 혼전 성관계, 혼전동거, 혼전 성관계로 인한 임신 중절,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신근화, 강명희, 2013; 정희정, 2001). 성태도의 경우 성의식과 비슷하게 성에 대한 이념, 지각, 성향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성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행위에 대한 신념, 선호의 방식,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키스와 포옹, 자위행위, 혼전 성교, 동성애, 항문 성교 등에 대한 성적 가치관과 임신, 출산, 결혼,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고연숙, 2001; 김순구, 2021; 김현영, 2021; 송수호, 2016; 신근화, 강명희, 2013; 안치훈, 2017; 호선민, 2009). 한편, 손강숙과 정소미(2016)는 성인식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인식이 성지식, 성의식, 성태도에 대한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개념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성 관련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목적인 스킨십/성적 행동과 성관계, 혼전 성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성행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 기독교적 입장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실제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기독교인 중 결혼 상태가 미혼이고 나이가 19세 이상 35세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응답자의 기독교인 여부는 교회 출석이나 예배 참석이 아닌 설문 참여자가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선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도 소재 P시에 위치한 기독교 대학과 지역 교회들(3 교단, 6 교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참여 대상을 모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 중 미혼 기독교인이며 나이가 35세 이하인 547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Variable	Value	n	%	Mean (SD)
Sex	Female	306	55.9	-
	Male	241	44.1	
Age (years)	23 or Under	187	34.2	-
	24 - 26	159	29.1	
	27 - 29	111	20.3	
	30 - 32	66	12.1	
	33 or Over	24	4.4	
Academic Achievement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70	12.8	-
	Students in College / University	265	48.4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161	29.4	
	Students in Grad. Schools or Above	51	9.3	
Attitude to Economic Issues	5-point scale (5 = Conservative)	-	-	3.02 (.871)
Attitude to Social Issues	5-point scale (5 = Conservative)	-	-	2.98 (1.078)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성별을 기준으로서는 여성이 56%로 조금 더 많았고, 나이를 기준으로서는 23세 이하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4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대학생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더 다양하고, 학력 수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에 평균이 각 3.02점(경제 이슈), 2.98점(사회 이슈)으로 전반적으로는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 2. 측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법을 사용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3주 동안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주요 문항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나이, 학력, 거주 지역 등); (2) 사회학적 특성(사회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성향 등); (3) 종교 활동 및 신앙(교회 출석 기간, 예배 빈도, 청년부 활동, 영적 성숙,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4) 결혼 인식(결혼 필요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향); (5) 출산 및 자녀 인식(출산 의향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6) 성행동에 대한 인식(스킨십에 대한 입장, 스킨십 허용 정



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입장,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수용).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은 아래와 같다.

### (1) 성행동에 대한 인식

성행동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영역(행동, 도덕적 판단, 기독교 관점)의 여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행동 영역에서는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 허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스킨십에 대한 입장은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엄격한 금지 - 철저한 기준 준수 - 신중한 허용 - 과감한 완화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스킨십 허용 정도는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스킨십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스킨십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손잡기/팔짱끼기 - 포옹/입맞춤 - 키스 - 성적 애무 - 성관계까지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도덕적 판단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부부만의 특권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해 측정하였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입장은 전혀 잘못되지 않음에서 항상 잘못되었음까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관계가 부부만의 특권인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수용은 성관계의 특성을 두 가지 항목(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육체적/정서적/영적 결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여섯 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수용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을 활용한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을 위해 이상의 여섯 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하였다.

### (2) 종교 활동 및 신앙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종교 활동 및 신앙을 독립 변수로, 집단 유형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 활동 및 신앙은 다섯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교회 출석 시작 시기(모태 신앙에서 20-30대 출석: 5점 기준), 예배 빈도(현재 출석하지 않음에서 매주 한 번 이상: 4점 기준), 그리고 청년부 활동(전혀 참여하지 않음에서 모든 활동에 참여: 4점 기준)은 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영적 성숙은 Ellison이 개발한 영적 성숙 척도(Spiritual Maturity Index)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영적 성숙은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성숙되었다는 것으로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 의해 성장하기보다는 자신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신앙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tevenson, 1999).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해 6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독교 신앙 성숙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영적 성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0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은 Gibson과 Francis가 1996년에 개발한 기

독교 근본주의 신앙 척도(Christian Fundamentalist Belief Scale)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신교 전통과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에 대한 것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예수의 탄생/재림, 예수님의 기적 등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Hood, Jr., 1999). 이 척도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7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

결혼 인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하나는 결혼의 필수에 대한 태도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의 결혼 의향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및 자녀 인식도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다. 하나는 본인의 출산 의향에 대한 것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 세 항목(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임, 자녀는 부부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함, 자녀는 외동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음)을 합산하여 5점으로 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요 변수(참여자의 사회학적 특성, 종교 활동 및 신앙, 결혼/출산/자녀 인식, 성행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현황 파악이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기술통계(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보다는 통계적 정보를 기반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종교활동과 신앙이 성행동 인식 유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특성 및 종교활동과 신앙 변수를 분석에 함께 포함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행동 인식 유형 집단을 기준으로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에 대한 집단 비교를 하였고 이를 위해서 Wald의 연관성 검정(Wald's Associ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Wald 검정은 전체 모형과 일대일 집단 비교 별로 카이제곱값(Chi-squared value)과 유의확률(p-value)을 제공해 줌으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SPSS 2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Wald 검정을 위해서는 Mplus 8.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분석 모형 A)을 실시하고 이어서 종교 활동 및 신앙 변수를 중심으로 한 공변인의 영향(분석 모형 B)과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의 집단 차이(분석 모형 C)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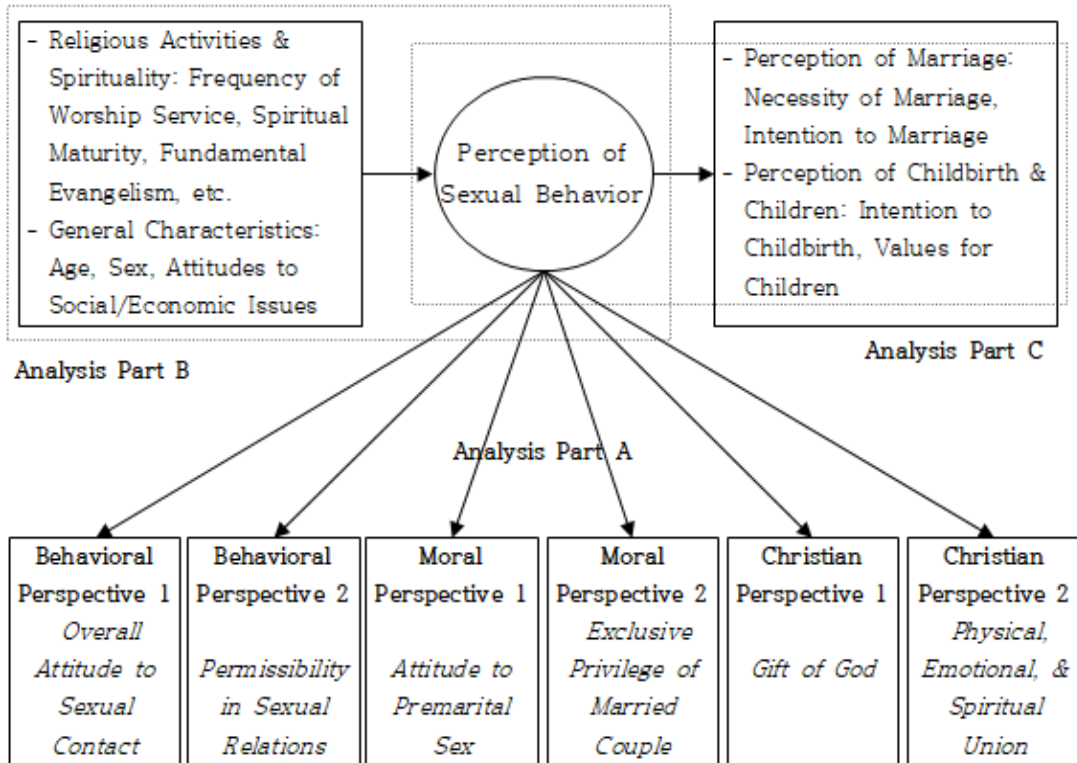


Figure 1. Latent Profile Analysis Model on the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 IV. 연구결과

### 1. 주요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중심 개념인 성행동에 대한 인식은 여섯 변수로 구성하였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 허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철저한 기준 준수’가 283명(52%)으로 가장 많았고, ‘엄격한 금지’가 11명(2%)으로 가장 적었다. 스킨십 허용 정도에서는 키스가 219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과감한 완화 태도를 가진 참여자 모두가 성관

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30명, 91%) 허용하였고, 신중한 허용 태도를 가진 참여자 중에도 절반 가까이는 성관계(63명, 29%)와 성적 애무(34명, 16%)를 허용하였다.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 3.60점과 3.26점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혼전 성관계가 5점 척도 기준이고, 혼외 성관계는 4점 척도 기준이어서 두 변수 모두 5점 척도로 기준을 통일하게 되면 혼전 성관계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 정도가 혼외 성관계보다 높다는 것이다.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 관점으로 성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평균 3.52점)과 성관계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결합(평균 3.55점)이라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의 평균 모두 4점 기준 3.5점 이상의 수준이어서 기독교 관점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lated to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Category	Variable	Value	n	%	Mean (SD)
Behavioral Perspective	Overall Attitude to Sexual Contact	Wide Openness	33	6.0	-
		Careful Openness	220	40.2	
		Strict Standards	283	51.7	
		Strict Prohibition	11	2.0	
	Permissibility in Sexual Relations	Sex	96	17.6	-
		Sexual Caress	56	10.2	
		Kiss	219	40.0	
		Hugs or Light Kiss	128	23.4	
		Holding Hands or Arms	37	6.8	
		None	11	2.0	
Moral Perspective	Attitude to Premarital Sex	5-point scale (5 = Premarital sex is wrong)	-	-	3.60 (1.283)
	Agreement to The Privilege of Married Couple	4-point scale (4 = Sex is the exclusive privilege of married couples)	-	-	3.26 (.992)
Christian Perspective	Sex as the Gift of God	4-point scale (4 = Sex is the gift of God)	-	-	3.52 (.688)
	Sex as the Physical, Emotional, & Spiritual Union	4-point scale (4 = Sex is the physical, emotional, & spiritual union)	-	-	3.55 (.723)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활동 및 신앙 영역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421명, 77%)이 모태 신앙이었고, 설문 참여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매주 일 회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청년부(또는 대학부) 활동에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은 30%(166명)이었지만,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한다면 67%(370명)로 열 명 중 일곱 명은 청년부 활동에 참석하였다. 영적 성숙은 6점 척도에서 평균 4.24점으로 보통 수준(3.5점)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척도에서는 5점 척도 기준 평균이 4.74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결혼과 출산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변수 모두에서 5점 척도 기준 평균이 4점을 상회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이 필수라는 문항의 평균은 4.0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related to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Religious Activities/Spirituality, & Perception of Marriage/Childbirth

Category	Variable	Value	n	%	Mean (SD)
	The First Church Attendance	After High School	23	4.2	-
		Middle/High School	28	5.1	
		Elementary School	33	6.1	
		Before Elementary School	39	7.2	
		From Birth	421	77.4	
Religious Activities & Spirituality	Frequency of Worship Services	Currently None	10	1.8	-
		Several Times a Year	16	2.9	
		Every Two Weeks	21	3.8	
		Every Week or More	500	91.4	
Participation in Young Adult Group Activities	Participation in Young Adult Group Activities	None	68	12.4	-
		Somewhat	109	19.9	
		Most of the Times	204	37.3	
Spiritual Maturity	Spiritual Maturity	All the Times	166	30.3	-
		6-point scale (6 = Highly matured)	-	-	
Christian Fundamentalism	Christian Fundamentalism	5-point scale (5 = Highly evangelical)	-	-	4.74 (.523)

	Intention to Marriage	5-point scale (5 = Highly intended)	-	-	4.47 (.808)
Perception of Marriage & Childbirth	Necessity of Marriage	5-point scale (5 = Highly necessary)	-	-	4.01 (.764)
	Intention to Childbirth	5-point scale (5 = Highly intended)	-	-	4.30 (1.009)
	Value for Children	5-point scale (5 = Highly valued)	-	-	4.62 (.701)

## 2.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영역(행동, 도덕적 판단, 기독교 관점)에서 여섯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잠재프로파일 수는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AIC와 BIC), 통계 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LMR-LRT와 BLRT),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 지수(entropy), 집단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정보기반 적합치 지수에서는 AIC와 BIC 모두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지수 모두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이후로 감소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통계 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에서는 LMR-LRT 기준으로는 2개 모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BLRT 기준으로는 2-4개 모형 모두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 지수인 Entropy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0.9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lark, 2010).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에서부터 4개 모형까지는 증가하다가 5개 모형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 기준에서도 2개 모형에서 3개 모형 차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고, 3개에서 4개 모형 차이에서는 적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집단 비율에서는 모든 프로파일에 연구참여자 전체 수의 최소 5% 이상이 속해야 한다는 Jung과 Wickrama(2008)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잠재프로파일 4개 모형과 5개 모형에서는 한 집단이 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준 충족은 2-3개 모형이었다. 이상의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적모형으로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잠재프로파일 세 개 모형의 AIC는 7039.633, BIC는 7151.549였고, entropy는 0.962였다. 세 프로파일의 비율은 첫 번째가 58%, 두 번째가 24%, 그리고 세 번째가 18%로 나타났다.

Table 4.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Criteria	No. of the Latent Profiles				
	2	3	4	5	
AIC	7394.000	7039.633	6981.392	6840.811	
BIC	7475.785	7151.549	7123.439	7012.989	
SABIC	7415.471	7069.014	7018.683	6886.013	
LMR-LRT	0.000	0.1142	0.1672	0.2129	
BLRT	0.000	0.0000	0.0000	0.2196	
Entropy	0.917	0.962	0.966	0.960	
Classification rate (%)	1	27.7	17.9	17.3	18.2
	2	72.2	24.2	56.0	28.0
	3		57.9	24.5	6.0
	4			2.1	2.0
	5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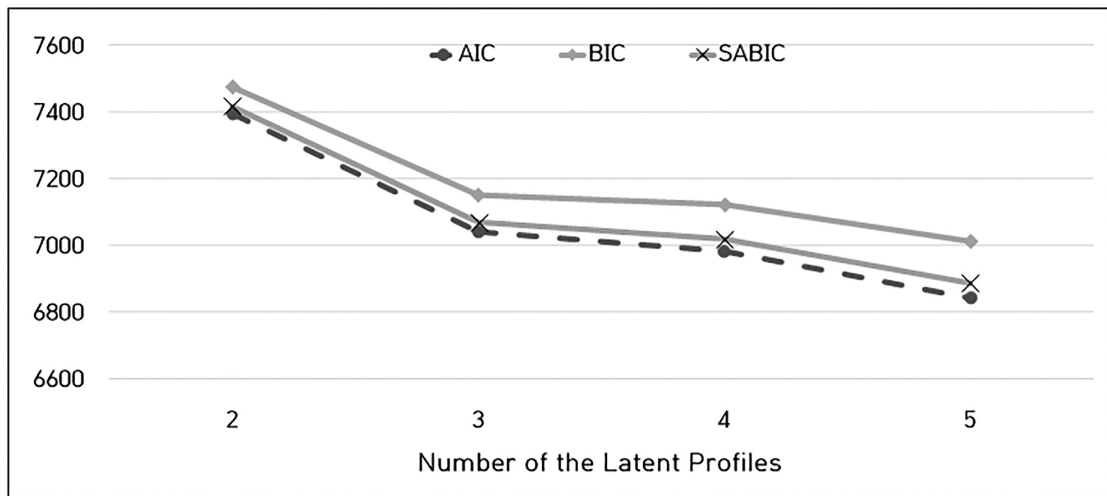


Figure 2. Changes in AIC, BIC, SABIC as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Incr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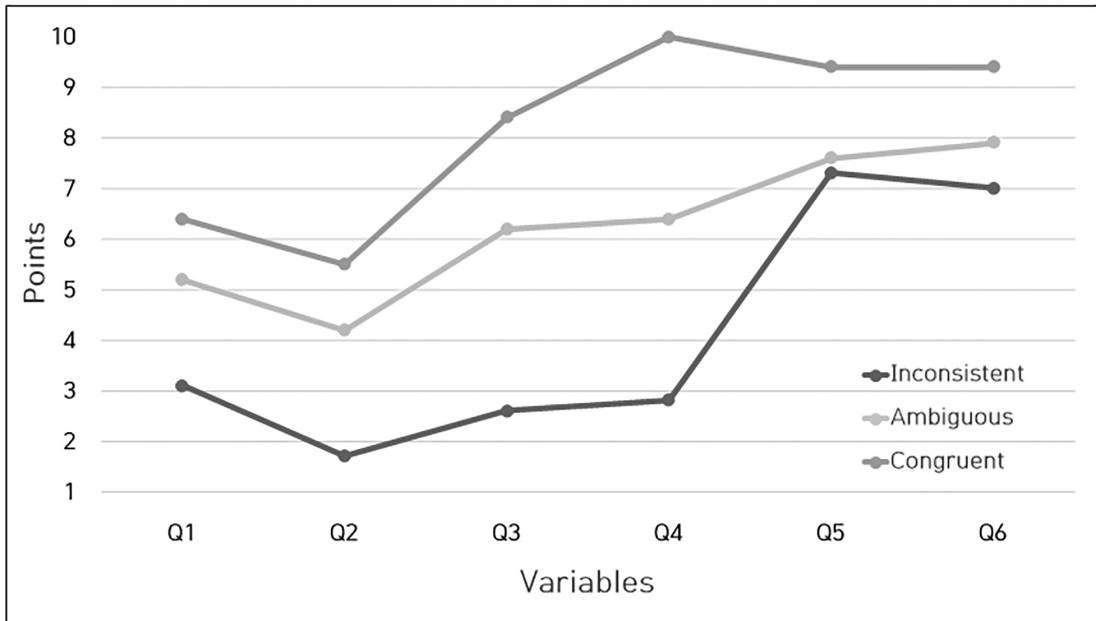


Figure 3. Latent Profiles of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Q1 = Behavioral perspective 1: Overall attitude to sexual contact (Original scale: 1 = wide open; 4 = stric prohibition)  
 Q2 = Behavioral perspective 2: Permissibility in sexual relations (Original scale: 0 = no relation; 5 = sex)  
 Q3 = Moral perspective 1: attitude to premarital sex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5 = morally wrong)  
 Q4 = Moral perspective 2: the exclusive privilege of married couple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4 = morally wrong)  
 Q5 = Christian perspective 1: the gift of God for people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4 = morally wrong)  
 Q6 = Christian perspective 2: the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union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4 = morally wrong)

미혼 청년 기독교인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여섯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변수에 따라 척도 기준(최고값이 4점 또는 5점)이 상이하여 모든 변수의 점수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Figure 3]에 제시하였고, 각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라 첫 번째를 ‘일치형’, 두 번째를 ‘모호형’, 세 번째를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일치형은 기독교 관점의 높은 수용과 도덕적 판단에서 혼외 성관계를 옳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으며, 성행동이 보수적인 유형이다. 성행동에 관한 기독교 관점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행동의 허용범위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형에는 58%의 청년이 속하였다. 모호형은 세 가지 프로파일 중에서는 가장 중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독교 관점 수용 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확실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중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는 24%의 청년이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일치형은 세 프로파일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독교 관점 수용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고, 모호형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치형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 관점 수용이 높은 것과는 달리 성행동의 개방성과 허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는 18%의 청년이 속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종교활동과 신앙이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able 5. The Effect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Religious Activities/Spirituality on the Latent Profil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ategory	Variable	Congruent Type <sup>1</sup> vs. Inconsistent Type <sup>2</sup>		Congruent Type <sup>1</sup> vs. Ambiguous Type <sup>2</sup>		Ambiguous Type <sup>1</sup> vs. Inconsistent Type <sup>2</sup>	
		Coef.	OR	Coef.	OR	Coef.	OR
General Characteristics	Sex	-.869**	.420	-.323	.724	-.545	.580
	Age	-.171	.8843	.040	1.041	-.211	.810
	Attitude to Social Issues	-.275	.759	-.070	.932	-.205	.815
	Attitude to Economic Issues	.030	1.030	-.101	.904	.130	1.139
Religious Activities & Spirituality	The First Church Attendance	.069	1.072	.033	1.034	.036	1.037
	Frequency of Worship Service	-1.021**	.360	-.564	.569	-.457	.633
	Young Adult Group Activities	-.320	.726	-.220	.803	-.100	.905
	Spiritual Maturity	-2.130***	.119	-1.412***	.244	-.718*	.488
	Christian Fundamentalism	-1.400***	.247	-1.154**	.315	-.246	.782

1 = Reference group; 2 = Comparison group; \*  $p < .05$ ; \*\*  $p < .01$ ; \*\*\*  $p < .001$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예측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 이슈 태도, 경제적 이슈 태도)과 종교활동 및 신앙(교회 출석 시작 시기, 예배 빈도, 청년부 활동, 영적 성숙,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을 공변인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에서는 여자가 일치형에 속할 확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치형과 불일치형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태도와 같은 다른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교활동과 신앙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적 성숙 변수가 모든 집단 비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영적 성숙이 높을수록 일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모호형과 불일치형의 비교에서도 영적 성숙이 높을수록 모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변수는 일치형과 불일치형 집단 간 비교와 일치형과 모호형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수용이 높을수록 일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교활동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교회 출석 시작 시기와 청년부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예배 빈도 변수는 불일치형보다는 일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 4. 잠재집단을 기준으로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에 대한 집단 비교 분석

Table 6. Group Comparison related to Perception of Marriage/Childbirth:  
Wald Association Analysis test result of distal outcomes

Variable	Congruent Type (CT) Mean	Ambiguous Type (AT) Mean	Inconsistent Type (IT) Mean	Overall X2	Group Difference
Attitudes to Necessity of Marriage	4.180	3.801	3.724	39.507***	CT > AT = IT
Intention to Marriage	4.676	4.258	4.099	45.492***	CT > AT = IT
Values for Children	4.787	4.411	4.370	38.487***	CT > AT = IT
Intention to Childbirth	4.533	4.018	3.904	39.905***	CT > AT = IT

\* p < .05; \*\* p < .01; \*\*\* p < .001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결과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결과 변수로 네 가지(결혼 필수에 대한 태도, 본인의 결혼의향,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본인의 출산 의향)를 구분하였다. 네 가지 변수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모든 비교에서 동일하게 일치형의 평균이 모호형과 불일치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모호형과 불일치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치형에 속한 미혼 청년들이 다른 유형의 청년들보다 결혼에 대해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의 결혼 의향이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더 긍정적이었고, 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미혼 청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즉 스킨십에 대한 입장,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입장,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수준에 따라 이들 청년들의 집단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탐색하고, 각 집단에 미치는 신앙적 요인들의 수준에 따라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각 집단별로 결혼/출산 의향 및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의 경우 ‘철저한 기준 준수’ 혹은 ‘엄격한 금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약 54%)을 넘었지만 신중한 허용(46%)이나 과감한 완화(6%)라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 스킨십에 대해 엄격한 입장과 허용적 입장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스킨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기독교인 미혼 청년들의 36%가 교제 중인 상대와 성관계가 가능하고 결혼을 할 상대와는 57%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2014). 또한 스킨십 허용정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20%에 약간 못 미치는 참가자들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여 크리스천 청년 대여섯 명 중 한 명은 혼전 성관계에 허용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상원 등(2014)의 연구에서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과반이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내용과도 분명한 차이를 갖는데, 이같은 차이들은 각 연구참여자들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실제로 교회에 나온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던 반면, 이상원 등(2014)의 연구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본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선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실제 신앙생활 수준/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차이는 각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신앙생활이나 교회 출석 유무/수준에 따라 성에 대한 입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조(2003)는 기독교 청년들의 80%가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는 옳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해당 연구의 경우 참여자들의 90%가량이 교회를 다닌 지 최소 4년 이상 되었고 매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 허용정도에 대한 응답들을 함께 살펴보면 ‘신중한 허용’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들 중에서 29%는 성관계를, 16%는 성적 애무까지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스킨십에 대해 신중하다’라는 전제가 붙는다 해도 결국 허용이라는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로는 성관계 혹은 성관계에 가까운 행동들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과감한 완화’(6%) 태도를 가지는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응답자들(91%)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스킨십에 대해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철저한 기준 준수’(46%)라고 응답한 참여자들 중에도 성관계나 성적 애무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9%였고, 키스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44%에 이르러 ‘철저한 기준’에 대한 기준이나 범주 또한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경우, 혼전 성관계가 대개 혹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가깝게 나타난 반면, 전혀 잘못되지 않았거나 대개 허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 나타났으며, 판단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나머지 20% 정도로 확인되었다. 반면 혼외 성관계에 대한 허용 정도의 경우, 성관계가 오직 부부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나 기독교 청년들의 다수는 성관계를 부부관계 내에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참여자들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입장과 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혼외 성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혼전 성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비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이슈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기독교 청년들이 혼외 성관계에 비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혹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자신이 미혼인 입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차이는 현재 자신들의 행동, 혹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경우, 성관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문항과 성관

계가 육체적 결합만이 아닌 정서적, 영적 결합을 포함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미혼 청년들 대부분은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단지 쾌락을 위한 도구나 행위가 아닌,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른 응답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동의를 보다 실질적인 상황들에서 적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미혼 기독교 청년들은 대부분이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인정(91%)하지만 이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율은 그보다 작고(72%), 혼전 성관계가 옳지 않다고 보고하는 비율(60%)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상당수가 분명하고 일관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다른 맥락과 관계들 속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앞서 제시된 성행동에 대한 인식들(세 가지 영역, 여섯 개의 질문)에 따른 집단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탐색한 결과, 미혼 기독교 청년들은 서로 구분되는 세 집단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 즉 세 가지 영역, 여섯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에 따라 각 집단을 일치형, 모호형,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같은 명명에 있어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 정도가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즉 일치형 집단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의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불일치형 집단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점수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분류된 세 집단의 응답 패턴과 전반적인 형태를 고려할 때, 첫 번째 집단인 일치형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스킨십에 대한 입장',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세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전반적인 형태 또한 다른 두 집단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의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점수의 경우 다른 집단들, 특히 불일치형으로 확인된 집단의 점수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불일치형 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의 점수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일치형 집단의 경우와 달리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 성관계에 대한 신앙적 관점과 현실적 적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치형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 10점 기준 9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는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두 집단의 경우, 절대적인 점수는 일치형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긴 하지만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 두 행동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일치형 집단에서만 확인되는 이와 같은 두 행동 간 점수의 차이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같은 현상은 일치형 집단에 속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기독교 청년들보다 전반적으로 성관계 자체나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혼전 성관계에 대해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만큼 엄격하게 성경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청년들의 60%가량이 이 일치형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회 차원의 구체적인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유형과 예측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 활동 및 신앙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도 영적 성숙과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수용 정도가 미혼 기독교 청년들이 어떤 집단에 속할지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적 성숙의 경우, 영적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불일치형 집단이나 모호형 집단에 속할 확률, 그리고 모호형 집단보다 불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즉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더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불일치형 집단보다 모호형 집단과 일치형 집단에, 그리고 모호형 집단보다도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경우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불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경의 근본적인 주장들 즉 천지창조, 예수의 탄생 및 재림, 기적 사건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불일치형 집단보다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일치형 집단보다 불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신앙의 분명함이나 성숙도 수준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 변인으로서의 유일하게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내창(2010)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예배에 자주 참석할수록 혼전 성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함께 포함된 청년부 활동 참여 및 교회 출석 시작 시기는 이같은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에 나가는 빈도나 신앙생활 지속 기간 자체는 그들이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할지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임(2000)의 경우 교회에 다닌 기간이 짧을수록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결과의 차이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다름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예배 참석 빈도의 경우, 성행동 인식 수준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신앙성숙이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동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예측요인으로 포함된 일반 특성들 중에서는 성별만이 유일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일치형 집단보다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성행동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상인, 2000; 최현종, 2015; 한내창, 2010).

마지막으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결혼 의향이 어떠한지, 자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출산의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의 수준이 분류된 잠재집단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갖는지를 탐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집단 간 비교에서 일치형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다른 두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의 응답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치형 집단에 속한 기독교 청년들은 모호형이나 불일치형 집단에 속한 청년들에 비해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정도가 높아, 결혼의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치형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이 결혼 의향 및 출산 의향에 있어서도 다른 두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성행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에 보다 더 높은 의미를 두고 본인의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으며,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장차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주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결혼/출산 의향 등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여러 상황적 요인들(경제적 상황, 안정적 직업 여부, 부모 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지 성태도에 대한 인식으로만 결정되는 개념은 아님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다.

## 2. 학문적/실천적 함의 및 한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 제시되었던 선행연구 결과와의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태도/인식 수준에서 상당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방적임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 관련된 태도/경험을 탐색함에 있어 단지 종교에서 기독교 여부를 묻는 것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할 수 있음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여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나 청년들을 양육하는 선생들의 경우, 스킨십이나 성관계와 같은 성적 행동에 대한 신중함, 엄격함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이성 교제나 성, 결혼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때 막연하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또한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보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상호 간의 열린 대화 및 경험/고민의 탐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천 청년 대부분이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동-도덕-신앙적 관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룹에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미혼인 청년들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성경의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함, 혹은 혼전 성관계를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는 미디어 등의 영향의 수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혼 청년들에게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보다 개인의 신앙적 성숙 정도가 미혼 청년들이 행동-도덕-신앙적 관점들의 수준이 가장 높고 또 서로 유사한/일치하는 그룹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청년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신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성적 행동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혹은 예방적 요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성과 관련된 행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특정 인식/행위의 옳고 그름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성에 관한 교육이나 논의가 직접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크리스천 청년들은 교회/기독교 기관 밖에서 성에 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설문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이므로 확인되며,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교회 출석 여부나 신앙 수준의 범주가 넓은 불특정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부터 진행한 다른 연구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교단과 교회들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경상도에 위치한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국한되기에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 전체에 대한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이 성행동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나 추이를 보고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성행동 관련 영역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응답 패턴에 따라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서로 다른 집단(일치형, 모호형, 비일치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신앙적 요소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동의하는 정도, 그리고 예배 출석 빈도가 비일치형 집단에 비해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또한 일치형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 즉 성관계에 대해 분명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높은 도덕적 입장을 취하고, 스킨십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과 비교할 때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출산 의향, 자녀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정미·김미옥 (2021). 여자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67-574.
- [Kang, J. M. & Kim, M. O. (2021).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Students of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7), 567-574.]
- 고연숙 (2001).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기열·오정림 (2014).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5(1), 1-13.
- [Kim, G. Y. & Oh, J. L. (2014). A Study of o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Consciousness and Values of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5(1), 1-13.]
- 김미숙 (2010). 일개 전문대학생들의 성 행동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252-258.
- [Kim, M. S. (2010).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Behavior of a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5), 252-258.]
- 김미옥 (2013).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8), 3876-3886.
- [Kim, M. O. (2013).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 3876-3886.]
- 김상임 (2000). 기독교인 성.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신학**, (41), 172-201.
- [Kim, S. I. (2000). Christian Gender Equality Awareness Survey Report. *Journal of Korean Feminist Theology*, (41), 172-201.]
- 김상희·윤우철 (2012). 남자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2), 248-257.
- [Kim, S. H. & Yoon, W. C. (2012). Sexual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s of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48-257.]
- 김수올·김소명 (2022).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구 오일 및 응용과학 학회지)**, 39(2), 359-367.
- [Kim, S. O. & Kim, S. M. (2022). The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General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 39(2), 359-367.]
- 김수진·문승태·강희순 (2011).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4), 434-443.
- [Kim, S. J., Moon, S. T. & Kang, H. S. (2011).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4), 434-443.]
- 김순구 (2021). 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8), 268-278.
- [Kim, S. G. (2021).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8), 268-278.]
- 김영기 (2011). 성 이중기준, 성 주체성, 성 의미가 대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7, 8-37.
- [Kim, Y. G. (2011).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27, 8-37.]
- 김영혜·어용숙·이화자·최소영 (2003). 대학생의 성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6(2), 115-126.
- [Kim, Y. H., Eo, Y. S., Lee, H. Z. & Choi, S. Y. (2003). A Study of Sexual Attitu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6(2), 115-126.]
- 김영희·문승태·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 [Kim, Y. H., Moon, S. T. & Kang, H. S. (2013).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3), 166-175.]
- 김윤희·조규영 (2014).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6(6), 1332-1341.
- [Kim, Y. H. & Cho, G. Y. (2014). Effects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 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6), 1332-1341.]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Kim, C. S.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57-70.]
- 김현영 (2021).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5), 482-491.

- [Kim, H. Y. (2021).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5), 482-491.]
- 김혜진·김희정·서민숙 (2020). 남녀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3), 153-162.
- [Kim, H. J., Kim, H. J. & Seo, M. S. (2020).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3), 153-162.]
- 남정우 역 (2003). **성 윤리학**. Stanley J. Grenz. (1990).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서울: 살림.
- [Nam, J. W. (2003).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Paju: Salimbooks. Trans. Stanley J. Grenz. (1990).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노인숙·김화선 (2020). 여대생의 성의식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2141-2150.
- [No, I. S. & Kim, H. S. (2020).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Attitude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2141-2150.]
- 박선화 (2019). 대학생의 성태도, 성평등의식과 성행동(성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2(1), 1-5.
- [Park, S. H. (2019). Sexual Attitude,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ine science*, 12(1), 1-5.]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ark, J. S., Im, J. Y., Kim, E. J., Byun, S. J., Lee, S. Y., Jang, I. S., Cho, S. H., Choi, S. Y., Lee, H. J. & Song, J. E. (2021). *2021 Family and Birth Survey-(Former)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서은주·차남현 (202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국내 연구 분석: 1985-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1), 162-169.
- [Seo, E. J. & Cha, N. H. (2021). Analysis of Domestic Studi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1985-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1), 162-169.]
- 손강숙·정소미 (2016). 대학생의 성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4), 1-24.
- [Son, K. S. & Jeong, S. M.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xuality in College

-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8(4), 1-24.]
- 손병덕 (2011). 기독교청소년의 교회활동과 성행동. **신앙과 학문**, 16(2), 91-110.
- [Sohn, B. D. (2011). Church Activiti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hristian Youths. *Faith & Scholarship*, 16(2), 91-110.]
- 손승희·김민주·이소림·최지경·하수정·조명주 (2018). 남녀 대학생의 성별 간 혼전 성교 및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성적 자율성 정도 비교. **경북간호과학지**, 22(2), 1-10.
- [Son, S. H., Kim, M. J., Lee, S. R., Choi, J. K., Ha, S. J. & Cho, M. J. (2018). A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remarital sex, cohabitation, and level of sexual autonomy. *Gyeongbuk Nursing Science Journal*, 22(2), 1-10.]
- 송수호 (2016).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 1995년, 2001년, 2016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Song, S. H. (2016).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 A Comparative Study with 1995 and 2001*. Masters Dissertation.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신근화·강명희 (201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의식의 매개효과. **인문과학연구**, 37, 489-518.
- [Shin, G. H. & Kang, M. H. (2013).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Sexual Attitude and the mediator effect of Sexual Consciousness. *STUDIES IN HUMANITIES*, 37, 489-518.]
- 안치훈 (2017). **대학생의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가 SNS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 [An, C. H. (2017). *The Effect of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SNS Sexual Harassment*. Masters Dissertation. Seonmoon University, Asan, Korea.]
- 양영미·조미옥·백경화 (2021). 간호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1(6), 55-63.
- [Yang, Y. M., Cho, M. O. & Back, K. H. (2021).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6), 55-63.]
- 오원옥 (2009). 대학생의 결혼의식,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32-240.
- [Oh, W. O. (2009). Marriage Outlook,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Sexual Awar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15(2), 232-240.]

- 우근희 (201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Woo, G. H.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Kongju, Korea.]
- 유연희 (2015). **대학생의 사랑유형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Yoo, Y. H. (2015). *A Study on the Love Styles and Sexual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이가연·주수산나·김종우 (2019).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개신교 미혼 청년의 연애와 성. **가족과 문화**, 31(1), 56-84.
- [Lee, K. Y., Joo, S. S. N. & Kim, J. W. (2019). Dating and Sex among Korean Protestant Unmarried Youth with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Family and Culture*, 31(1), 56-84.]
- 이규은 (2022).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179-199.
- [Lee, K. E. (2022). Study on the Needs o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Sex and Sex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6), 179-199.]
- 이명조 (2003).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정도와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Lee, M. J.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s of young people in Christian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view on marriage and marital life value*.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S., Park, J. S., Lee, S. Y., Oh, M. A., Choi, H. J. & Song, M. Y. (2015). *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20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상원·정재영·송인규 (2014). **교회의 성, 잠금 해제?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 보고서**. 서울: IVP.
- [Lee, S. W., Jeong, J. Y. & Song, I. K. (2014). *Sexuality in church, Unlock? Report on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experience of young people in Christianity*. Seoul: IVP.]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Y., Kim, E. J., Park, J. S., Byun, S. J., Oh, M. A., Lee, S. L. & Lee, J. H. (2018). *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201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은미·김가영 (2017). 대학생의 성태도, 부모의 성태도, 우울이 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5(3), 155-161.
- [Lee, E. M. & Kim, K. Y. (2017).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Sexual Attitude of Parents, and Depression on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3), 155-161.]
- 이주연·하상희·정혜정 (2005). 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특성변인과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49-172.
- [Lee, J. Y., Ha, S. H. & Chung, H. J. (2005).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3), 149-172.]
- 임희숙 (2014). 기독교가 성인들의 성 인식과 태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64, 191-227.
- [Im, H. S. (2014). A Study on Influence of the Christianit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the Adults.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64, 191-227.]
- 전요섭·함희영 (2007).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 차이 분석 및 복음주의 상담학적 대안. **복음과 상담**, 8, 300-320.
- [Jeon, J. S. & Ham, H. Y. (2007). Relationship of Cognitive Bias to the Image of God among Christian Undergraduates. *The Gospel and Counseling*, 8, 300-320.]
- 정은숙 (2015).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7), 4679-4688.
- [Jeong, E. S. (2015).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79-4688.]
- 정재영 (2021). 코로나 19, 청년, 기독교(1):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회탐구센터.
- [Jung, J. Y. (2021). COVID-19, Youth, Christianity (1): Inside and outside of changing youth. *2021 Christian Youth's Faith and Church Awareness Survey Seminar Resource Book*. The Research Center for the Korean Churches.]
- 정희정 (2001). **미혼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Jung, H. J. (2001). *Research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ur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조선희·한은주. (2020).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385-391.

- [Cho, S. H. & Han, E. J. (2020). Gender Difference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1), 385-391.]
- 조성봉·이수민·장선아·강병덕(2021). 국내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종교활동 참여와 기독교 신앙심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6(2), 33-62.
- [Cho, S. B., Lee, S. M., Jang, S. A. & Kang, B. D. (2021). Christia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s: Focusing on Church Activity Participation and Christian Religiosity in South Korea. *Faith & Scholarship*, 26(2), 33-62.]
- 조승희 (2020). 대학생의 성 이중기준, 성 의사소통, 성태도, 성행동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11(2), 465-480.
- [Cho, S. H. (2020).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Double Standard, Sex Communication,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465-480.]
- 주영희·정은숙·심문숙 (2013).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267-278.
- [Ju, Y. H., Jeong, E. S. & Shim, M. S. (2013).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9), 267-278.]
- 최현중 (2015). 종교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가족. **종교연구**, 75(2), 47-68.
- [Choi, H. J. (2015). Religion, Sexuality, and the Family. *Studies in Religion(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75(2), 47-68.]
- 하주영·김건희 (2009). 일 지역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여성건강**, 10(1), 17-32.
- [Ha, J. Y. & Kim, K. H. (2009).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10(1), 17-3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청년 트렌드 리포트\_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IVP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7). *Youth Trend report\_what do young people of our time live for*. Seoul: IVP.]
- 한내창 (2010).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한국사회학**, 44(5), 114-138.
- [Han, N. C. (2010).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xual Attitudes.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4(5), 114-138.]
- 홍병호 (2006). 기독교 성 윤리. **기독교철학**, 2(1), 151-212.
- [Hong, B. H. (2006). Christian Sexual Ethics. *Christian Philosophy(N/A)*, 2(1), 151-212.]
- 호선민 (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



학원.

- [Ho, S. M.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Harris, E. A. (2018). *Ideological Correlates of Sexual Behavior: Linking political ideology, religiosity, and gender ideology with orgasm and desire*. Doctoral Thesi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Hood Jr., R. W. (1999). *Christian Fundamentalist Belief Scale*. In P. C. Hill & R. W. Hood Jr. (Eds.). *Measures of Religiosity* (pp. 418-419). Religious Education Press.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 Stevenson, D. H. (1999). Spiritual Maturity Index. In P. C. Hill & R. W. Hood Jr. (Eds.). *Measures of Religiosity* (pp. 201-204). Religious Education Press.

#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독교 청년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 among Unmarried Young Christians

조성봉 (한동대학교)

이수민 (한동대학교)

강병덕 (한동대학교/교신저자)

### 초록논문

본 연구는 국내 미혼 기독교 청년들이 성행동 관련 영역들에 대한 인식, 즉 스킨십에 대한 태도,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그와 같은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P지역 기독교 대학과 지역교회들(세 교단, 여섯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청년들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성행동 관련 영역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분류된 집단들을 각각 일치형, 모호형,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적 성숙도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동의 정도, 그리고 예배참석빈도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치형 집단에 속한 청년들은 다른 집단의 청년들에 비해 결혼/출산의향 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미혼 기독교 청년, 성행동, 인식, 신앙